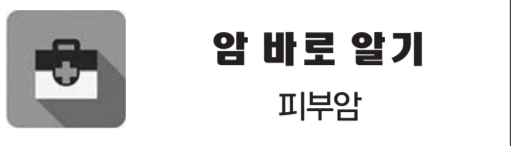


가려움·출혈 동반하는 점, 검버섯 아닌 피부암 의심



암 바로 알기 피부암

조선대병원 김민성 피부과 교수

#70대 중반의 할머니 김모씨는 발바닥에 검은 점이 있었는데 크기가 커지고 색깔도 점점 짙어졌다. 한 번씩 상처가 생겨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면, 오랫동안 낫지 않는 상처가 지속됐다고 한다. 김씨는 피부과에서 더모스코피(피부를 확대해서 보는 특수기구)와 조직검사 결과, 악성흑색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는 피부암 다학제 통합진료팀(피부과, 종양혈액내과, 외과, 해부병리, 영상의학과와 핵의학)을 꾸려 환자의 병기 설정과 치료에 대한 협의의 끝난 후, 골강 광범위 절제 수술과 감시리프절 생검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해당 부위가 2.5cm 크기로 중형이었으나, 다행히 다른 장기나 림프절에 전이가 되지 않아 다른 큰 수술 없이 잘 회복했다.

◇검버섯이나 점도 무시해서는 안 돼=최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암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중 피부암은 최근 서양에서는 5대 암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암에 포함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에서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20대나 30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피부암은 얼굴, 목, 팔 등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찰이 쉽고 조기

노인층 뿐 아니라 20~30대도 발생 진행 느리고 퍼지지 않는 비흑색종 간단한 수술로 완치 가능하지만 흑색종은 전이 잘 되고 생존율 낮아 자외선 차단 힘쓰고 술·담배 자제

발견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치부해 방치하다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일이 많다. 최근 들어서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이 일상화되면서 피부암인 줄 모르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피부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며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뉜다. 비흑색종은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대표적이며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잘 퍼지지 않아 늦게 발견하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

이중 '기저세포암'은 가장 흔한 피부암으로 전체 피부 악성 종양 중 50% 이상을 차지한다. 주로 눈꺼풀, 코 쪽, 눈 구석, 귀 뒤 등과 같은 얼굴 중앙 상부에 80% 이상 발생하며 표면에 모세혈관확장을 보이는 작은 덩어리로 시작한다. 대부분 초기에는 검버섯, 점으로 오인하기 쉽고 실제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자꾸 재발돼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편평세포암'은 기저세포암에 비해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더 크다. 특히 귀나 입술에 생기는 경우 재발이나 타 장기로의 전이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 부위는 대개 작고 단단한 덩어리로 시작하며, 넓적하게 융기된 형태, 사마귀 모양, 또는 궤양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대개는 단단하게 만져지며 발생 부위의 경계부는 명확하지 않다. 궤양은 주로 중심부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쉽게 출혈하고 딱지가 앉아 있기도 한다.

◇흑갈색이나 검은 반점은 유의해야=이에 비해 흑색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다른 암과 같이 전이를 잘하고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 흑색종의 20~50%는 기존의 용기한 흑갈색 반점에서 발생한다. 가려움증이나 통증과 같은 자각 증상이 없으며, 평평한 검은 반점이나 작은 덩어리로 보여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자세한 육안 관찰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발가락에 발생하는 말단흑색점흑색종이 60% 정도로 가장 흔하다. 기저세포암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율이 0.1%로 매우 낮지만 악성흑색종은 전이가 가장 잘 일어나 예후가 좋지 않다.

피부암을 식별하는 요령을 알아두면 여러 모로 이롭다. 원래 있던 점이 비대칭적으로 자라거나 색깔이 균일하지 않을 때, 가려움증과 통증이 동반되는 흑이 있을 때, 출혈이나 딱지가 반복되고 진물이 흘러 잘 낫지 않을 때는 의심해야 한다. 또한 원래 있던 점 주변에 작은 점이 나타날 때나 크기가 6mm 이상으로 크고 경계가 불규칙한 모양일 때, 색이 진해지고 두꺼워질 때는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



김민성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40대 여성의 손바닥에 생긴 점을 살펴 보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대부분의 비흑색종성 피부암은 수술적 제거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모즈미세도식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의 경우 모즈미세도식수술로 절제할 경우 재발률이 평균 1~2% 미만으로 매우 낮다. 악성흑색종은 침범된 깊이에 따라 정해진 크기의 광역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항암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다.

피부암 예방이나 조기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0세 이후 고령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피부암 진료는 육안검사 및 더모스코피 검사 등 환자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은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자외선 강도가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 또한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리=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캐슈기원 '희망트리'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연말연시를 맞아 환자의 캐슈를 지원하는 '희망 트리'에 불을 밝혔다. 희망트리 행사는 오랫동안 질환치료를 치친 환자와 보호자에게 반드시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말연시 외롭게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감격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병원 분수대에 희망트리를 설치했으며, 누구든지 캐슈기원 등 소망을 적은 카드를 걸 수 있도록 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급성 심근염으로 심정지 생후 2개월 아이 전남대어린이병원서 '에크모 치료'로 회복

최근 인천지역에서 수액주사 맞다 사망한 초등학생의 사인(死因)으로 의심되는 심근염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어린이병원에서 급성 심근염으로 심정지까지 일으켰던 생후 2개월 아이를 '에크모 치료'로 회복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아는 지난 7월 중순께 정색증과 호흡장애 증세로 인해 구급차에 실려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왔다. 도착 직후 저혈압에 심정지까지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으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첫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심장기능 급격 저하·전신 청색증 진행 등으로 계속 악화됨에 따라 심정지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바로 에크모(ECMO) 치료에 돌입했다.

에크모 치료는 심장기능을 되찾을 때까지 기계적으로 심장과 폐를 보조해주며 혈압과 장기를 보존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시행하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환아에 대한 에크모 시행 첫 6일은 상태가 더 악

화되었지만, 7일째부터 서서히 호전됐으며 8일째에는 에크모 장비를 떼어낼 정도로 좋아졌다.

이후 심장기능이 계속 좋아져 입원 3주 만에 건강할 모습으로 부모 품에 안겨 퇴원하게 됐다.

환아의 회복은 소아청소년과 조화진 교수를 비롯한 흉부외과의 원활한 협진 등으로 신속하게 치료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주치의 조화진 교수는 "현재 전남대병원 에크모 팀은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체외순환사들로 구성된 탄탄한 팀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남대병원 에크모 치료를 통한 생존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근염은 감염·약물·독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 심정지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며, 급사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이다. 특히 영아 및 소아에게는 단순히 감기와 비슷한 증세만을 보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이하나 이비인후과 언어치료사 국내 학회 2곳서 '우수 논문상'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 이하나(사진) 이비인후과 언어치료사는 최근 국내에서 열린 2곳의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하나 언어치료사는 최근 열린 '제20회 한국언어치료학회(학회장 전희숙) 학술발표대회'에서 '성악가의 음성 장애지수 및 가장음성장애지수 특성'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18 한국음성학회(학회장 김수진) 학술대회'에서는 '성악가의 한국어판 음성장애지수(K-VHI), 가장음성장애지수(K-SVHI), 음성관련 삶의 질(K-VRQOL) 특성 및 상관연구'를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연속해서 2편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이하나 언어치료사는 성악가의 음성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가장 성악가의 음성문제와 이러한 음성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밝혀 음성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풀어냄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7100만원
- 현재 50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크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크!**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자(법인)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운영자(법인)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입찰이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운영자(법인)이 없으신 분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사업주(법인) 유망분야
 - 태양광 사업을 영업 유망분야
 - 태양광 영업(법인) 유망분야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B+C+D+E+... (태양광사업 A+B+C+D+E+...)
문의처: 010-02340-7842, jk@daesco.com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구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기획/매	기획/매	· 사업/담당부서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코	스	신사업/매	R&D	· 태양광영업 경력자	나
		수정/매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공학석)	
세	라	수정/매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주
		신사업/매	R&D	· 설계영업 경력자	
라	크	신사업/매	R&D	· 영업/관리/전공자 유대	
		수정/매	R&D	· 영업/관리/전공자 유대	

· 접수기간: 010-02340-7842, jk@daesco.com,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